

**제2세션**  
**14:15-15:35**

**309호**

**뉴미디어연구회 세션**

사회 : 신정아(한신대)

**1. 보통 일베들의 시대, 데이터에서 나타난 혐오의 생산과 확산(녹화)**

발표 : 한영주(EBS)

**2.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발표 : 최효진(한국외대)

**종합 토론**

김소형(성균관대)

최선영(연세대)

이은경(희망제작소)



# 보통 일베들의 시대

## 데이터에서 나타난 혐오의 생산과 확산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가을철 학술대회

| EBS 기술기획부 연구위원 **한 영 주**

HEY:D's LAB

1



### 목 차

1장 일베의 계보 : 사이버공간의 간략한 문화사

2장 혐오의 수치화 : 2011~2020 일베 데이터 분석

3장 일베적 혐오 : 내부의 타자들

HEY:D's LAB

2

---

---

---

---

## 1장 일베의 계보 : 사이버공간의 간략한 문화사

HEY:D's LAB

3

1-1. 사이버 유머의 기원

HEY:D's LAB

### 일베란?

-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지만,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전사를 통해 문화적/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음
- (PC통신) 따지일보 - 디시인사이드 - 일간베스트(일베) → 독특한 밈(meme) 결과

- 1) 한국형 극우주의 발흥
- 2) 일본의 재특회(재일특권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 3) 인종주의적 공간
- 4) (여성혐오 기반) 호모소셜(homo social)공간



HEY:D's LAB

4

1-1. 사이버 유포의 기원

# 우월적 웃음의 지배

**웃음과 농담의 허용 수준**

- 웃음의 시각 : 우월이론, 대비이론(불일치 이론)
  - A. 우월이론 : 다른 사람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 코미디언 슬랩스틱(심형래 개그)
  - B. 대비이론 : 기대에 대한 환멸로 나타나는 웃음 → 탕자 가라사대(김형곤) 선생에게 기대되는 것과 정반대를 제시한 대비적 웃음
- 농담 : “쾌락 획득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사회적(by 프라이드)” : 화자 - 청자 간 공감대, 이해관계 동일할 때 성립
- 웃음의 컨센서스 붕괴 : 2010년 이후, 농담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김(프로불편러)
  - 단톡방 성희롱, 2017년 개그맨 황현희 vs. 샘 해밍턴 논쟁(Sbs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 흑인 분장), 장동민, 김구라 과거 행적과 문제적 발언들 사과



**황현희**  
35분 · 0

샘 형... 내가 웬만하면 개를 죽이고 했는데 형에 말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서 공개적인 자리에 글 올릴게...  
단순히 분장한 모습을 흑인비하로 몰아가는 형의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어떻게 해석이 되나면 영구 영구 라는 캐릭터는 자폐아들에 대한 비하로 해석될 수가 있고 예전에 한국에 시커먼스 라는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개그만 것도 있었어 그럼 그것도 흑인비하인건가?? 이런식으로 몰아가자면 형이 지금 하고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라는 프로그램은 어유롭지 못한 부모들에게 내 아이에겐 저렇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수 없어서 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프로그램이야. 라고 해석 될수도 있어 하지만 프로그램이나 형의 의도는 저렇게 아니잖아 한심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해



• (기사) 황현희, 샘해밍턴 저격이 환영 받지 못 하는 이유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704231453003&sec\\_id=540101&pt=ny](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704231453003&sec_id=540101&pt=ny)

< 2020년 관촬소년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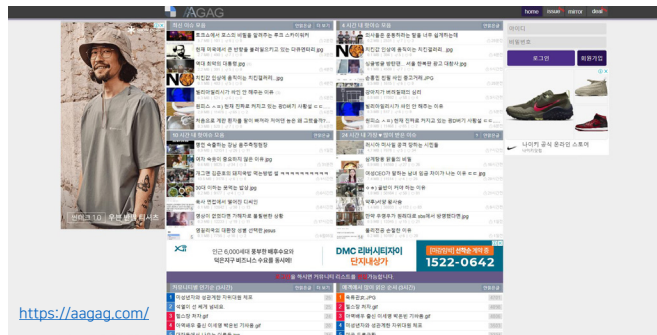
HEY:D's LAB

1-1. 사이버 유포의 기원

# 사이버공간의 자본, 웃음

**인기 게시물 확산 과정**

- 애객(aagag.com) 사이트
-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의 핫이슈 게시물을 한 곳에 모아서 보여주는 메타 커뮤니티
- 각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성격에 맞게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이 전혀 다른 제목으로 게시 → 인기 게시물 확산 과정
- 2020년 2월 10일까지 애객 게시물 분석 결과
  - 총 1만 5,000여건 - (중복제외 후) 743
  -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클릭수를 위한 화제성 게시물(대체로 유포)을 퍼나르고 있음



<https://aagag.com/>

- 웃음은 조회수, 추천수, 댓글수 등 수치적 성과로 측정
  - 극대화한 사람은 커뮤니티에서 유의미한 권력 성취
  - 일간베스트 등극 - 인정욕구 충족 - 재하 - 커뮤니티 활성화
-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핵심 : 웃음과 섹스를 동인으로 활성화
  - 세계적 코드 : 폰허브, 나인개그, 포츨, 레드 등
  - 섹드립,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확대 재생산, 여성혐오 데이터베이스 구축
  - 추천년동남 남성 중심 사회의 욕망이 온라인으로 이동

유머 콘텐츠는 커뮤니티를 움직이는 하부구조로  
자본과 연결됨

HEY:D's LAB

6

1-1. 사이버 유머의 기원

# 따지일보식 패러디 : 한국형 밈의 기원

### 따지일보, 한국형 밈 시작 \* 밈의 이미지적 구성물 '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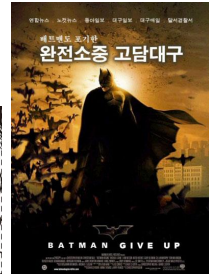
#### | 따지일보

- 1998년 김여준 '충수'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시작
- 정치, 재벌, 운동선수, 연예인 등 인물들의 모순적 모습 조롱, 조롱하는 패러디물 게시
- 많은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 제공
- 1999년 한 논문에서 따지일보 형식은 도발적이지만 성차별, 가부장적 담론이 재생산되는 것을 비판
  - 카타르시스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성찰 필요, 성찰 없는 카타르시스는 또 다른 보수



#### | 패러디 (대비이론 웃음)

- 현실정치, 퇴행적 정치에 대한 냉소, 거대 권력가들에 대한 조롱과 냉소
  - 이를 보는 수용자는 대리만족(생산자와 수용자가 소수자나 약자일때 강한 소구력 지님)
- 패러디 소수자성은 정당성과 등치할 수 없음 - 젠더권력 차원에서 남성 시각 표현
- 패러디 대상자에게 자신의 죄를 대속시키는 작용도 함
- 2000년대 초중반 패러디 : 대체로 보수정당과 지지자가 대상
  - 고담대구 : 가상의 도시 고담 + 대구
  - 일종의 지역드립, 보수 콘크리트층 대구 시민 조롱



HEY:D's LAB

7

1-1. 사이버 유머의 기원

# 디시인사이드의 부상과 '짤방'의 정착

### 디시인사이드, 따지일보 패러디 심화/발전

- 김유식의 디지털 카메라 인사이드
  - 1999년 디지털카메라 보급 팽창시기, 디지털 카메라 동호인 사이트로 시작한 커뮤니티 포털, 주요 단위는 특정 주제에 대한 사진(갤러리)
  - 2020년 8월, 디시인사이드 3,000여개 갤러리 개설 (대략 2.4일에 1개)
- 갤러리 규칙
  - 원칙상 주제에 맞는 사진 업로드(짤: 짤림 방지용 사진의 준말)
  - 디시 짤: 공들여 촬영한 사진 ~ 그림판 그림, 웹상 주워온 짤(짤줍) 등 경계 없음
  - 짤의 원본은 별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2008년 뽀뽀눔 시리즈: 짤의 범위 확장(이미지-음원-영상)
  -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배경음악 "Don't Let me be misunderstood"와 뽀뽀눔 CM송의 유사성 발견 → 폭발적 반응 → 히갤(hit gallery)로 직행
    - ✓ 뽀뽀눔 [https://www.youtube.com/watch?v=T6Ua34lPh\\_0](https://www.youtube.com/watch?v=T6Ua34lPh_0)
    - ✓ 놈놈눔 <https://www.youtube.com/watch?v=4EFDVzrLsts>
    - ✓ 뽀뽀눔 <https://www.youtube.com/watch?v=IQHHmV6-D-c>
  - 이후 '뽀뽀눔병 디스코믹스'제목으로 시리즈 분화로 이어짐



HEY:D's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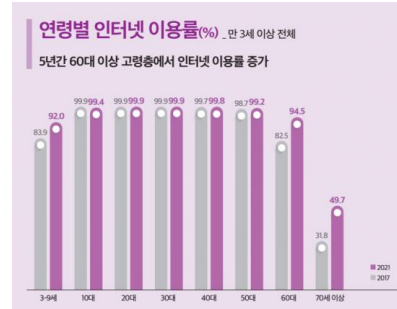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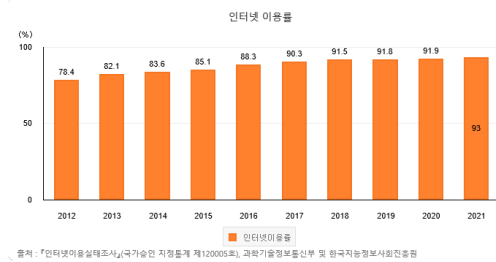
8

1-2. 사이버 여론은 진보적이었나

# '인터넷=진보'라는 신화

### 디시인사이드, 판지일보 패러디 심화/발전

- 한국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은 진보적이라는 통념이 있었음
- 정치/사회적 진보 성향이 40대 미만 청년층에게서 두드러진다는 통설에 의존
- 실제로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 현황 보고서 통계자료에서 오랜 기간 청년층이 이끌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예 :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이후 세대 균열, 지역균열이 갈등의 축으로 주목
  - 청년층 : 범민주당 계열, 중년층 이상 : 범민자당 계열 정당 지지



| 과기부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0EKKJBR>

HEY:D's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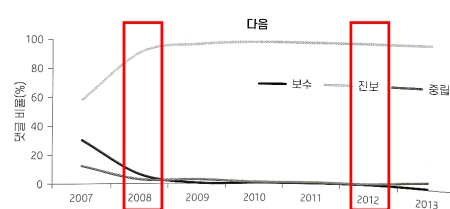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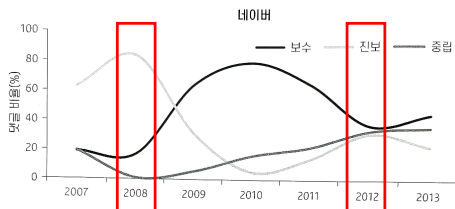
9

1-2. 사이버 여론은 진보적이었나

# '인터넷=진보'라는 신화

### 디시인사이드, 판지일보 패러디 심화/발전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네이버와 다음의 사회면 뉴스, 댓글 많은 기사 20개씩 총 280개 기사에 달린 댓글 분석
  - 2008년 초반: 네이버, 다음 모두 '진보적' 견해 우세
  - 특이점 : 여성 비난의 경우, 2007년부터 여성가축부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태도 존재
    - ✓ 군대가서 희생하는 남성 VS. 군대도 가지 않고 평화누리는 여성 → 프레임으로 상대결 촉발



출처: 《네이버 댓글엔 원 열이 있었다》, 《시사인》, 2014. 10.28.

- 2008년 6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 정치사회 갤러리에 존재했던 소규모 보수세력 결집 계기 마련 → 촛불집회는 '노노데모' 등 인터넷 카페가 대두한 직접적 원인
  - 정치적 이슈에서 큰 변화를 보이며 네이버 뉴스 댓글은 급격한 보수화 표현
  - 2009년 미네르바 사건 - 박왕자 피살 사건
- 2012년 대선 기간 전후, 댓글 분포에서 네이버와 다음 변화

HEY:D's LAB

10

1-2. 사이버 여론은 진보적이었나

# '인터넷=진보'라는 신화

### 디시인사이드, 만지일보 패러디 심화/발전

- 2010년 이후 한국 인터넷 담론장 문제
  - 1) 진보담론의 리더십 부재
  - 2) 다음(아고라) 필두로 진보 커뮤니티의 게토화
  - 3) 진보 네티즌 자체의 보수성 : 두발자유화, 반여성
  - 4) 성찰 불가능성 : 자신의 오류 가능성 부정하고 상대편 악마화
- 일베가 등장할 수 있는 훌륭한 기반 마련
  1. 진보담론 부재로 전략적 공백을 일베가 선점할 수 있는 담론적 공간
  2. 진보담론 자체의 자생력이 상실한 의미에서 일베의 공격이 갖고 있는 파괴력 극대화하는 전략적 우위 제공
  3. 민주주의, 정권과 같은 거대 담론에 매몰되어 생활정치 영역에 대한 관심 부재
    - ▶ 김치녀 담론 등 보수적 윤리적 가치에 기반 일베 공격을 사실상 방지



#### # 2008년의 촛불과 '순수한 시민'

- 2008년 촛불집회 초창기 '촛불소녀'
  - ▶ 촛불을 든 중고등학생 소녀들, 이전 집회에 대한 이미지, 사상적으로 무장한 성인들의 조직화된 저항이라는 스테레오타입 완전히 벗어난 것
  - ▶ 여느 촛불 집회보다 시민 참여나 자발성 측면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
  - ▶ 촛불집회 탈권위와 재기 발랄함은 정보화와 맞물리며 자신의 의견만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 강화로 이어지기도 함
  - ▶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깨어있는 시민'보다 '선동과 날조', '감성팔이'에 빠진 촛불 좀비라는 규정 생기자 환멸

#### # 보수로 거듭난 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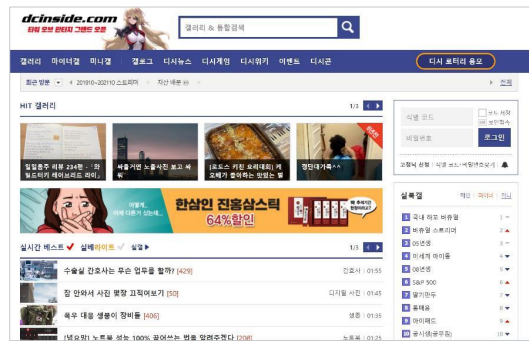
- 2000년대 초반까지 진보성향 → 노무현 지지자 다수
- 노무현 대통령 탄핵무효 선고 → 정사갤(정치사회갤러리), 무적의 투표부대 핵심으로 현실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자신감 생김 → 여당 정치인 김근태(보건복지부장관), 임종석(열린우리당 대변인) 초청 토론회 → 전여육(한나라당 의원)
- 기자 + 작가 + 국회의원 내공으로 팩트 근거한 반론 → 여육대첩, 오크의난
- 정사갤 진보적 목소리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함, 반면 보수 목소리 증폭되며 보수 성향으로 변화 → 선동, 팩트, 광우병, 좌측 등 어휘적 무기로 저격

1-3. 디시와 일베의 연결고리

# 개념글을 위해 경주하라

### 디시 개념글 도입

- 디시 갤러리 형태는 URL 주소만 공유한 채, 각 갤러리로 분화해서 운영
- 일간 100만 건 이상 게시물, 250만 건 댓글
- 게시물 업로드와 동시에 다음페이지로 밀려나서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리젠(regen)를, 즉 글 갱신이 높으면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
  -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념글' 도입 → 일종의 추천시스템
  - ▶ 갤러리 떡밥 정리, 많은 이용자들이 인정함 → 결과적으로 콘텐츠 생산활동 독려
- (메인)히갤의 경우 인기를 얻지 못하면 화면 노출기회가 거의 없음
  - ▶ 2009년 9월 기준 히갤 게시물 최근 게시물 100건의 조회수는 평균 5만 3,000여건 회
  - ▶ 조회수 6만 6,000회 회로 일반갤러리(3,000건) 히갤보다 높은 수준
  - ▶ 갤러리 이용자끼리만 공유하는 세계관 안에서 그들만의 유머코드 공유



<https://www.dcsinside.com/>

HEY:D's LAB

12

1-3. 다시와 일베의 연결고리

# '웃기는 능력'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

### 능력을 위한 트롤링

-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초보적 반칙 트롤링(뉴스) 발생
  - 대표적으로는 정체성 사기를 통해 신뢰성 높이려고 함

#### 1) 현직 00입니다

- 글쓴이 실제 직업, 성별 등을 밝힐 때 신뢰가 올라가는 믿음에 기대함
  - 예 : n번방 조주빈 - 캄보디아 거주 40대 홍신소 김사장
  - 예 :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박대성 - 고구마 파는 노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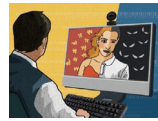
"현직 00입니다"



HEY:D's LAB

#### 2) 여성의 특수 지위

-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에서 여성의 특수지위 이용한 정체성 사기
- 맥락이해x, 기계치 등 편견에서 비롯된 여성혐오가 바탕이 됨
- 네티카마



일본 오키마에서 유래한 용어로 인터넷 공간에서 여성의 특수한 지위를 활용해서 유리한 이점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온라인에서 남성이 여성인척

- 여성의 존재로 갤러리 내 과도한 친목/유대 형성
  - 친목은 새로운 이용자 진입X 의사소통 형성 → 커뮤니티 도덕률 훼손
  - 갤러리 구성원 간 의식적으로 친목금지 형태 보임
  - 2009년 코갤에서 시작된 반친목 운동은 커뮤니티 존속을 위한 것
- 여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보잉아웃'은 최악의 금기
  - 시장애곡, 파벌형성, 수직계급과 성별 타파한 평등한 공간을 지향

1-3. 다시와 일베의 연결고리

# '웃기는 능력'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

### 사이버 능력주의 실천

- 학력, 재산, 전파와 상관없이 순간적 기지를 발휘하여 인정받는 커뮤니티 지향
- 오프라인의 지위를 막론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평등을 지향, **사이버 능력주의**를 실천
  - 특혜, 스펙 등이 아니라 웃기는 게시물, 짤, 떡밥, 드립으로 어그로를 만드는 능력이 중요



반지성주의  
모든 사람에게 기회 제공

- 어그로 중요성
  - 극단적 표현이러기 보다는 성스러운것을 부정, 해체한다는 것에 있음
- 드립은 절대적인 것이 아님
  - 일베 이용자들에게 '씹선비' 는 어그로 끌기 위해 엉뚱하거나 자극적 주장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비난 받고 회화화됨
  - 공정 경쟁 이외 나머지는 가치 없음, 윤리/도덕적 잣대가 없음

- ✓ 어그로는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했던 용어
- ✓ 파티원 중에서 전략적으로 적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어그로꾼 역할
- ✓ 이러한 점에서 '목'은 어그로 전략의 성공과 실패에 구심점
- ✓ 어그로꾼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해하는 전략가로 찬사 받음

HEY:D's LAB

---

---

---

---

---

---

---

---



1-3. 디시와 일베의 연결고리

# '드립'의 형성과 일베의 탄생

### 디시에서 일베로

- 공들인 콘텐츠 < **자극적 제목의 콘텐츠**
- 갤러리 규모와 리전율이 높아지며 웃음을 생산하기 위해 투여되는 노동의 가치가 절하
- 공들인 콘텐츠보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환경
- 갤러리 이용자들이 암묵적으로 지키던 커뮤니티 금기 한계를 넘어 무한 확장을 시도
  -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비극 희생자, 유가족도 농담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
  - 혼수상태에서 사망한 야구선수, 전현직 대통령 등

#### 고인드립

- 노무현 대통령, 518 등 고인에 대한 과도한 모독 → 코갤, 야갤에서 패드립, 지역드립 형태로 등장

✓ '드립'은 부정적 단어의 승격화로 재치와 풍자에 대한 찬사로 접미사 처럼 사용하게 됨  
 ✓ 드립은 유머 코드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음, 계획되지 않음을 전제로 무개감, 진심을 담지 않은 '농담' 형태  
 \*드립은 허무하고 알파한 애드립 비난할때 쓰던 개드립이란 말에서 출발

- 게시물 관리 귀한 갤러리 운영자(알바)에게 부여
  - 게시물 삭제에서 다수의 개뽀글이 삭제되며 탄압으로 여김
  - 각종 드립 극단화 원인 작용, 게시물 법적 대응 비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집착
- **개뽀글 탄압전에 다른 곳으로 탈출 필요**
  - **최초 일간베스트 저장소**

HEY:D's LAB



15

1-3. 디시와 일베의 연결고리

# 메르스갤러리와 메갈리아

### 남녀 젠더 대립 시작

- 2015년 5월 30일, 한국인 여성 여행객 2명 메르스 확산 방지 위해 방역조치 시행 하던 홍콩 당국의 격리 거부 기사
  - 각종 매체에서 국제망신, 이기주의의 단어 사용하며 여행객 행동 비난
  - 수많은 여성혐오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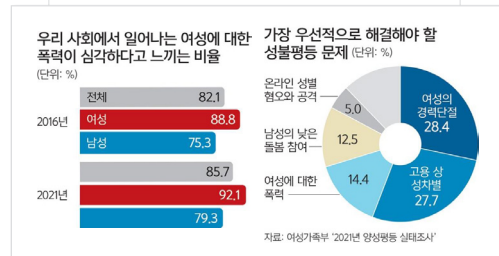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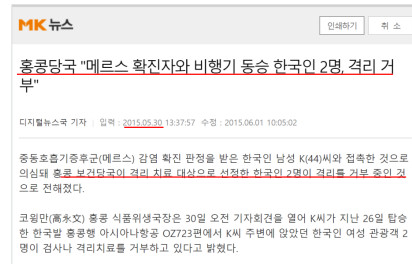
- 디시 '메르스 갤러리(매갤)'은 남성 연예인들에 대한 게시물이 모인 여초 갤러리



- 매갤 이용자들은 당시 현상을 김치남 미러링으로 공격
- 여성 혐오표현을 제재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매갤 갤러리에서 쓰는 말들이 곧장 금지어로 신속하게 제재됨
- 매갤은 디시 밖에서 '메갈리아'라는 새로운 등지를 만들
- 매갤 혐오표현 대상 : 남성

-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 여성혐오 살인으로 규정
  - 일베 포함 남성 커뮤니티는 묻지마, 조현병에 걸린 개인 총동 범죄로 규정
- 젠더갈등에서 실패한 내용까지 언론에서 보도하며 심화

HEY:D's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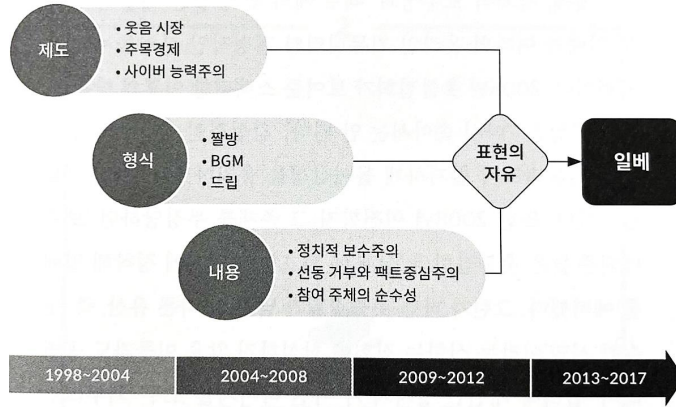
16

1-3. 다시와 일베의 연결고리

# 일베라는 분기점

### 사이버 문화

- 일베와 일베 이전 사이버 문화의 접점
  - 제도, 형식, 내용
- 1. 평등주의 신념으로 웃기는 능력만 요구
- 2. 웃음 전달 콘텐츠로 짧
  - 이후 합성, 병맛 등 집단협업의 패러디
  - 어그로, 네티마 등 트롤링 방법 등장
- 3. 정치적 보수성과 팩트 집착
  - 일베 활성화



HEY:D's LAB

17

## 2장 혐오의 수치화 : 2011~2020 일베 데이터 분석

HEY:D's LAB

18

---

---

---

---

---

2-1. 일베는 망했다?

# 좌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순 세력'

### 데이터 처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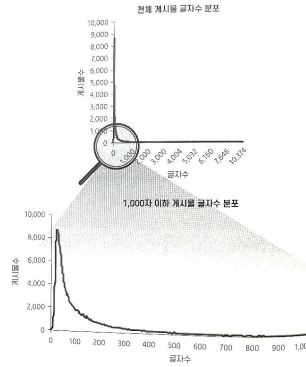
#### 1단계 : 데이터 범위 설정

- 수집데이터의 기간 범위
  - 2011년 5월 28일 ~ 2020년 12월 31일 (총3522일)
- 수집 대상 : 일베 게시물
  - 최초 게시물 : 2011년 5월 28일 ~ 7월 31일 (65일) : 45건
  - 게시물 없음 : 2011년 10월 (불안정 기간으로 활성화되기 전)
  - 645개 데이터 삭제
- 조정된 데이터 기간 범위
  - 2011년 10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111개월)

< 일베 게시물의 글자수 통계 >

항목	게시물 수	평균 글자수	표준편차	최소값	상위 25%	상위 50%	상위 75%	최대값
통계치	81만 654	336	974	3	35	78	209	9만 3,273

#### 2단계 : 데이터 아웃라이어 제거



- 분문 글자수 기준으로 최대 5,000자를 넘지 않으며, 200자 이하 가장 많을 것을 확인함
- 1000자 미만 글자수 제한할 경우, 전체 게시물 92.6%(75만여 건)가 해당
- 이를 바탕으로 최종 분석대상으로 상위 95% 게시물 선정
- 총 77만 112건 데이터 분석

< 일베 게시물의 글자수 분포 >

HEY:D's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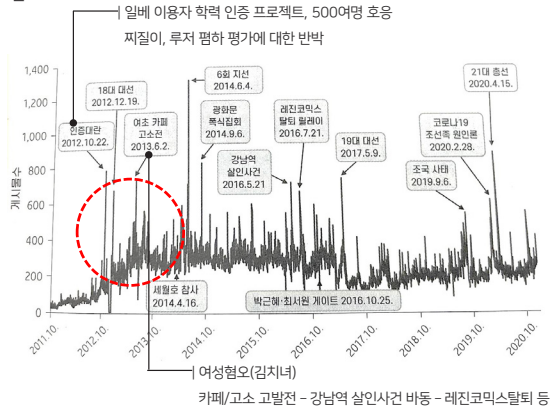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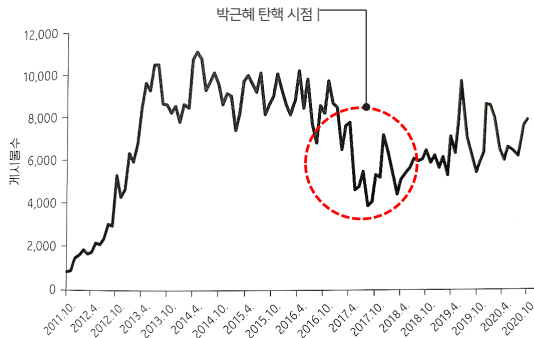
19

2-1. 일베는 망했다?

# 열광의 흐름 : 거시 시계열 분석

### 거시 시계열 분석

- 월 평균 6,876건 게시물 작성
- 가장 적은 달: 2011년 10월, 790건 / 가장 많은 달: 2014년 5월, 1만 981건



HEY:D's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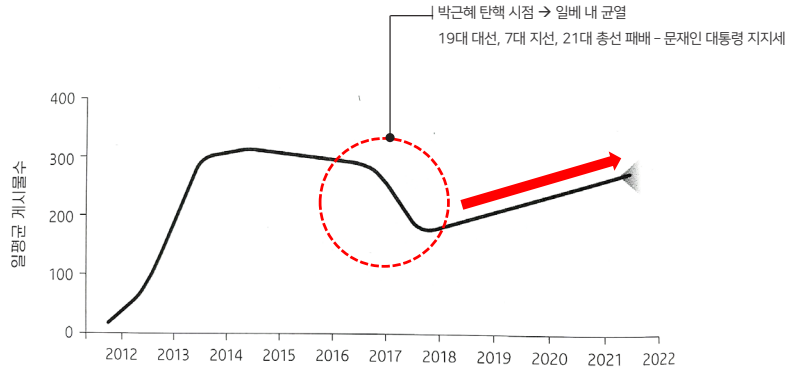
20

2-1. 일베는 망했다?

# 열광의 흐름 : 거시 시계열 분석

### 거시 시계열 분석

- 월 평균 6,876건 게시물 작성
- 가장 적은 달
  - 2011년 10월, 790건
- 가장 많은 달
  - 2014년 5월, 1만 981건



HEY:D's LAB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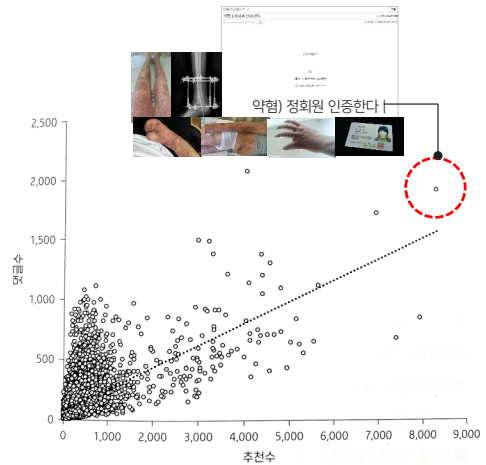
2-1. 일베는 망했다?

# 열광의 흐름 : 거시 시계열 분석

### 거시 시계열 분석

- 게시물 수(버즈량)수를 통해 일베 성장 양상을 한눈에 파악

	게시물당 추천수	게시물당 댓글수
총합	3억 223만 551	1억 1,079만 9,160
평균	392	143
표준편차	390	141
최소값	0	0
상위 25%	212	56
상위 50%	315	103
상위 75%	460	185
최대값	4만 2,911	1만 8,055



“고통사고 + 화재 크리터지는 바닷물에 전신화상+골절입음 xx ㅋㅋㅋ”

HEY:D's LAB

2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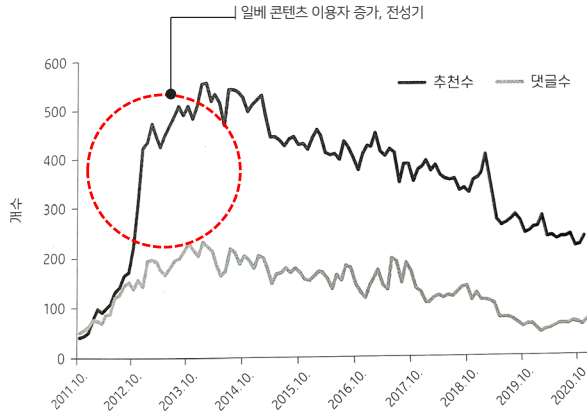
---

2-1. 일베는 망했다?

# 열광의 흐름 : 거시 시계열 분석

### 거시 시계열 분석

- 게시물당 월평균 게시물수는 늘어났지만 반응량은 줄어들음
- 조국 사태 등 반전 모멘텀을 받아 결집했으나, 개별 게시물 확장성이나 호소력은 전성기 시절 일베보다 협애
- 일베 유입 자체 감소, 유튜브 중심으로 보수 담론 생성과 확산이 재편



HEY:D's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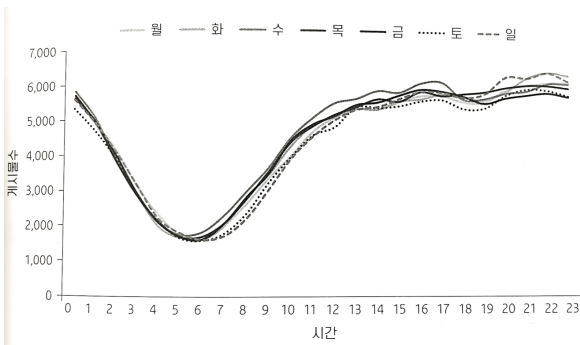
23

2-1. 일베는 망했다?

# 누가 일베를 채우는가: 미시 시계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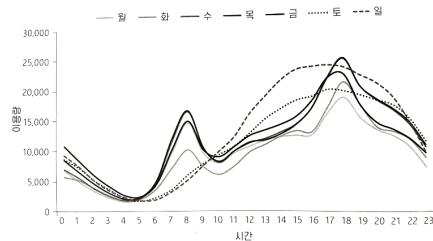
### 미시 시계열 분석

- 요일/시간대별 평균 일베 게시물 생성량 분석
- 시간대별로 유의미한 패턴을 보이지만 요일별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전형적인 일과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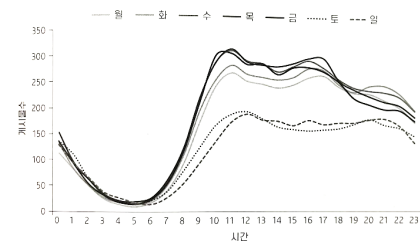


HEY:D's LAB

< 2020년 5월, 서울시 공공자전거의 요일/시간대별 평균 대여량 >



< 루리웹에서의 요일/시간대별 평균 게시물 생성량 >



2-1. 일베는 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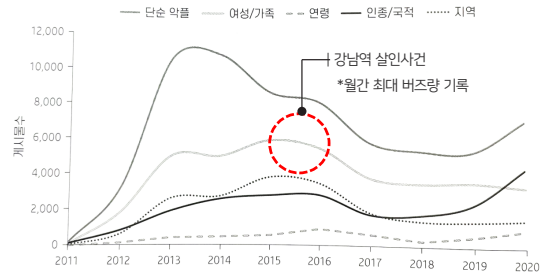
# 텍스트 분석에 대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

- 제목에서 명백한 혐오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은 전체 20.1%(15만 5,051건)
- 세부 혐오 카테고리별로, 단순악플 > 여성/가족 혐오표현 > 인종/국적 혐오표현, 지역 혐오표현(13%) > 연령 및 성소수자 혐오표현

< 일베 게시물의 혐오표현 분류 >

	게시물수	백분율	월평균 게시물수	표준편차	게시물당 평균 추천수	게시물당 평균 댓글수
단순 악플	6만 4,809	41.8%	583.9	255.3	422.1	137.6
여성/가족	3만 7,231	24.0%	335.4	136.5	420.0	173.5
인종/국적	2만 1,083	13.6%	189.9	109.2	351.0	143.5
지역	1만 9,370	12.5%	174.5	114.0	367.5	115.4
연령	4,919	3.2%	44.3	30.5	361.9	154.8
성소수자	3,061	2.0%	27.8	18.3	387.3	169.6
남성	1,950	1.3%	17.6	9.1	386.0	171.9
종교	1,347	0.9%	12.1	11.1	342.3	151.3
기타 혐오	1,281	0.8%	11.5	9.6	388.9	235.6
총합	15만 5,051	100.0%				



- 여성/가족 혐오표현 → 양적 성장 꾸준히 거듭
  - 욕에서 욕으로 끝나는 커뮤니케이션 특성 보임
- 지역 혐오표현 →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후로 패턴화된 버즈량 25

HEY:D's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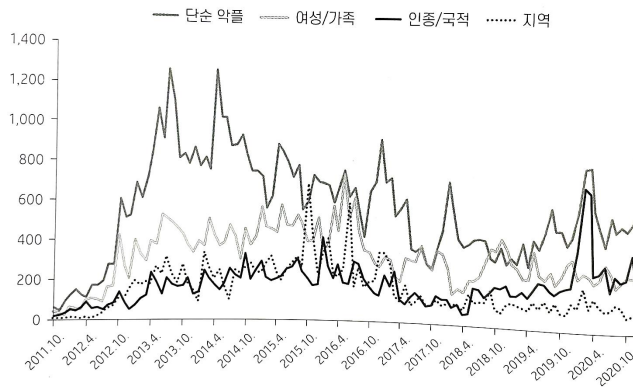
2-2. 일베를 채운 혐오의 말들

# 혐오의 대상

**혐오 대상의 특징**

- 여성 혐오표현
  -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거듭
- 지역 혐오표현
  -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후 시점으로 패턴화된 버즈량 변동
  - 일부 불안정 버즈는 특정 시점의 떡밥에 따라 좌우

< 일베에서의 주요 혐오표현 월간 변동량 >



HEY:D's LAB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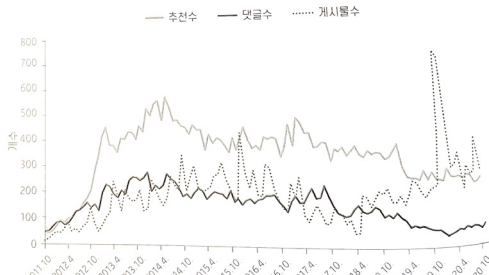
2-2. 일베를 채운 혐오의 말들

# 혐오의 대상

### 혐오 대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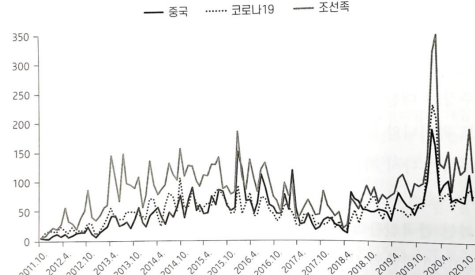
- 인종/국적 혐오표현
  - 2016년 양적되조를 보였으나, 2018년 이후부터 2020년사이 본격적인 상승 곡선 보이다가 하반기부터 기존 버즈량으로 돌아감
  - 코로나 특수성 감안해도 여성 혐오표현을 뛰어넘는 특이성은 괄목할만 함
  - 이후 여성혐오와 비등한 수준, 절대량 급증했지만 주장에 대한 동조는 유의미한 증가가 없음
  - 2017년 사드배치 이후 보복조치, 동북공정 등 중국 혐오 정당화 → 한국이 중국 침략 받을 수 있다는 불안 또한 촉발

< 인종/국적 혐오표현 월간 게시물 생성량과 반응량 >



HEY:D's LAB

< 인종/국적 혐오표현의 세부 토픽 월간 게시물 생성량 >



27

2-2. 일베를 채운 혐오의 말들

# 일상이 된 '좌파' 혐오

### 단순 악플 게시물 분석

- 북한과 좌파를 향한 혐오표현은 단순 악플로 분류하여 분석
- 단순악플 게시물
  - 6만 4,809개, 6개 토픽으로 분류
  - 거의 모든 토픽에서 욕설 포함
- 젊은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욕설을 강조 표현처럼 활용하는 언어습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저격문화는 2014년 일베 초창기 지배적 형태 → 점점 규모가 작아지며 단순 악플내 평범함 토픽과 유사한 수준

HEY:D's LAB

각국의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보임

박원순 전 서울시장 → 고인에 대한 저주, 조롱 추측

역대 대통령 이름, 정치 이념

토픽 번호	1	2	3	4	5	6
토픽명	권계	저격	정보	국제	사건 사고	정치
게시물수(건)	9,827	1만 3,971	8,006	9,110	1만 901	1만 3,190
비율	15.1%	21.5%	12.3%	14.0%	16.8%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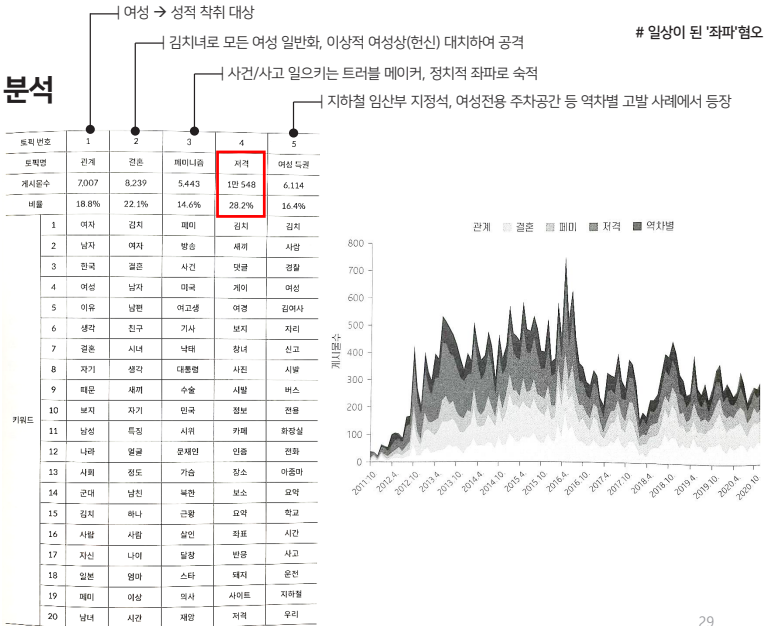
카테고리	1	2	3	4	5	6
1	세계	세력	노무	미국	기사	재미
2	사람	병신	시발	재앙	경찰	나라
3	여자	저격	게이	세월	사건	재판
4	성악	케이	장소	영화	뉴스	문재인
5	병신	댓글	이기	한국	기사	대통령
6	친구	시발	일본	트럼프	조사	북한
7	북한	사건	영화	조선	방송	한국
8	시발	인물	사건	조국	박원순	병신
9	자기	최고	우리	병원	선교	국인
10	시간	이거	가게	의사	내용	우리
11	편파	하나	당당이	사법	사람	발정대
12	인생	주먹	정도	백신	인문	개새끼
13	우리	민주	미국	자살	서울	좌파
14	정도	분양	시간	때문	사실	자유
15	특징	홍어	타스코	형사	요약	정부
16	군대	광고	반말	사망	조각	박근혜
17	하나	사이드	문치	코로나	감염	사법
18	소리	정보	버스	기록	경찰	일본
19	지랄	지랄	레방	이유	보도	실치
20	부모	개새끼	매리	치료	학인	노무현

2-2. 일베를 채운 혐오의 말들

### 여성/가족 혐오표현 게시물 분석

- 여성/가족 혐오표현 게시물은 5가지 토픽으로 분류됨
- 여경에 대한 비난 28.2%로 가장 많았음
- 김치녀에 대한 정보 및 징벌을 위한 좌표 공유, 징벌 인증 등 저격토픽에 포함된 게시물수가 많음
- 여성을 성적 대상화 키워드가 다수
- 여성의 몸을 성적 착취대상으로 보고 대상화하는 전형적인 여성 혐오표현
- 기혼자들은 김치녀와 결혼 말기거나 결혼해도 사울에 한번 패아한다 등 발언 쏟아냄

HEY:D's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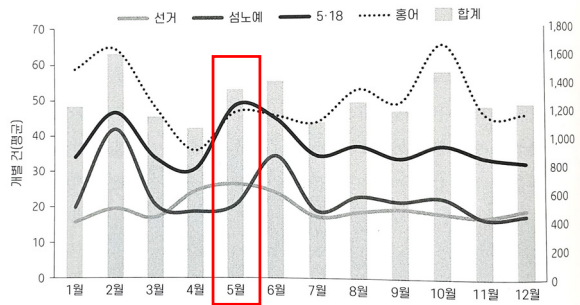
29

2-2. 일베를 채운 혐오의 말들

### 지역 혐오표현 게시물 분석

- 지역 혐오표현 게시물은 5가지 토픽으로 분류됨, 그 중심은 호남
- 1) 타자화: 호남지역민을 외국, 비인간(홍어)로 표현
- 2) 5.18 수정주의: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여 진압을 정당화
- 3) 낙인효과 강화: 염전, 섬노예 등 전라도에서 일어난 엽기적 사건 반복 언급

HEY:D's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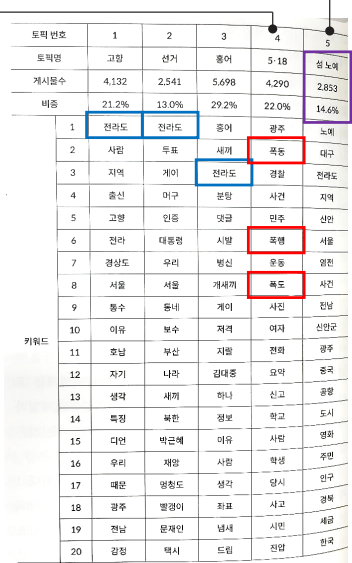


- 호남 문제의 본질: 인종 → 열등한 이등시민으로 간주
  - 체계적인 차별과 낙후된 인프라, 국가 폭력에 의한 학살기억 등으로 인해

2014년 염전 섬노예사건 장소 신안군으로 특정

서울 아난곳의 혼돈과 아만성에 대한 프로그래피

- 혐오 & 아만에 대한 공포
- 폭동, 내란으로 인식
- 국가 폭력 아닌 정당한 범 집행, 사회 혼란 막기 위한 정당화 과정으로 인식
  - 민주화는 정상을 비정상성으로 이끈 것으로 인식





### 3장 일베적 혐오 : 내부의 타자들

HEY:D's LAB

31

#### 3. 일베적 혐오 내부의 타자들

#### 일베 게시물 분석 사례

	제목	추천수	비추천수	댓글수
사례 1	518 광주가는 버스 안에서 일베 중이다	323	37	145
사례 2	일베에 왜 518 글이 올라오는 이유??	269	21	348
사례 3	일본유학 개이가 느낀 김치년 VS 스시년 가장 큰 차이점 BEST 5	479	474	387
사례 4	나도 대자보 썼다.jpg	5,708	213	1,142
사례 5	[펌]종북세력의 실제 근대 대너은 사람들은 알 거다...!	503	17	210
사례 6	독립군 후손, 625 참전용사, 베트남 파병 장병, 518 유공자 현재 모습.JPG	711	31	170
사례 7	이것이 518의 FACT 다!!!!!!	693	144	565
사례 8	[재입]광주 사태가 폭동인 이유	528	44	356
사례 9	개씨발년某甲.jpg	472	187	328
사례 10	[스입]일베 상주하는 좌중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TXT	1,574	145	1,037
사례 11	518 핵폭탄드디어 올 것.이.왔.다!!!!	1,195	104	351
사례 12	차 안 가지고 와서 박친 김치년.jpg	855	88	628
사례 13	레얼 강남 스타일.jpg	531	94	452
사례 14	문제인 후보님이 100만 원짜리 의자? 그러실 분 아닙니다	930	35	124

→ 일베가 타자를 호명하는 방법

→ 혐오의 정당화

→ 일베의 열광과 의례

HEY:D's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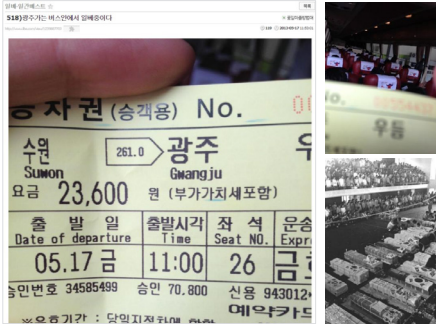
32

3-1. 일베가 타자를 호명하는 방법

# 전라도, '7시 방향'에 위치한 '홍어들의 나라'

### 사례 1 "518 광주 가는 버스 안에서 일베 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베지(사)가 광주 일베에서 나타낸 혐의에 대해 **4시간 20분** 동안 20여 차례의 댓글을 올렸다고 한다. **일베로부터 버스에 올라타려는 7인들을 찾는 구간**

광주세탁이 아니라 **7시** 방향이라고 하면 죽고 그러면서도

- 1 이베지(사)
- 2 댓글(홍어들이야)
- 3 무관(이길수있다고)

5.18을 무장 폭동으로 보는 관점과 연결  
광주를 외국으로 취급하는 경향

"진심으로 조심히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 때 될 줄 모른다"

"홍어국 안 위험하겠는 몸조심히라"

"여긴 뎀으면 너도 회노자다 걸리면 강제추방 이고 치료집권 지역이다 ㅋㅋ 조심히"

"홍어 새끼야 왜 태어났노?"



- 전라도 혐오표현 직접적으로 나타남 : 손상님, 홍어 등
- 넓은 의미에서 지역드립에 포함 : 홍어드립, 호성드립 등 분화 형태로 나타남
  - > 호남 사람들 폭력성, 야만성을 근거로 들며 희화화
  - (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10714042215235>
  - > 전라도를 다른 나라로 취급 : 7시국, 홍어국
  - > 광주, 호남에 대한 타자화

HEY:D's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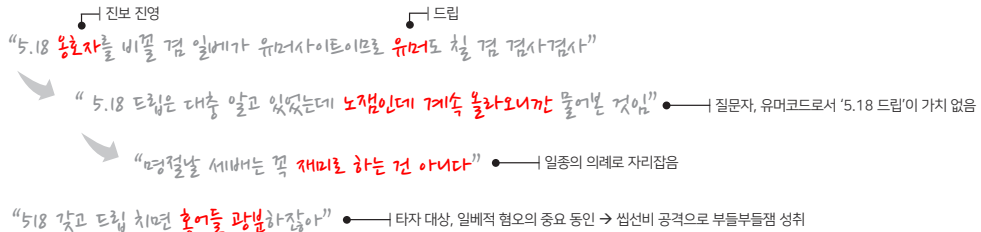
3-1. 일베가 타자를 호명하는 방법

# 전라도, '7시 방향'에 위치한 '홍어들의 나라'

### 사례 2 "일베에 왜 518 글이 올라오는 이유??"

- 일베 운영자가 이용자들에게 직접 질문한 사례, 5.18 드립의 이유를 묻는 게시물 → 518에 대한 일베 인식 보여줌

"5.18을 보는 시각이 다양"



- 5.18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진보세력의 음모로 신격화되었다는 생각이 지배적 → 5.18 폄훼하여 진보 진영 자체를 공격하기 위한 것
  - > 종북, 북한 정권과 혼동하여 '5.18 북한 개입설' 지지하는 방향을 보이기도 함
- 일종의 드립으로 유머를 유머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의 웅졸한 형태로 인식함
- 한국사회 문제는 지역보다 이념에 있음
- 5.18 드립 생성은 **일간베스트 등극 경쟁** 때문

HEY:D's LAB

34

3-1. 일베가 타자를 호명하는 방법

# 여성, '개념 없는 김치녀'

### 사례 3 “일본유학 게이가 느낀 김치녀 vs 스시녀 가장 큰 차이점 BEST 5”



- 여성에 대한 타자화를 극단적으로 보여줌
- 한국여성들(이기적, 계산적) VS 일본여성들(정서적 위안제공, 경제적 독립)
  - 한국 여성의 허영, 허세에 대한 불만
  - SNS 명품백 → 경제적 능력 없으나 남성 착취/도구적 사용 결과
  - “연애하다 헤어진달”
- 남성의 소박한 소망은 허세로 가득찬 김치녀들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며 일본 여성 대비

HEY:D's LAB

- 1. 단치녀에 관해**  
 김치녀: **반칙과 개같은 인간관계 개념**  
 스시녀: **20대 단치녀에 대한 거부감**  
 김치녀는 단치녀가 되는 게 아닌 단치녀가 되면 **반칙으로** 같은 인식을 가지게 되고, 김치녀는 자기위안형이라고 하고 김치녀들은 **개같은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김치녀는 그냥 그냥 평범한 거고 남한테도 관심이 없이 가깝다.
- 2. 태치녀에 관해**  
 김치녀: **자 상성만 심했다**고 회한다. **20대 고상인(태치녀)은 20대 초반** 남자를 상대하더라.  
 스시녀: **무스레가 좀 해도 괜찮게 생각해**다. 태치녀 **차오**인데 **20대 초반** 남자를 상대하더라.  
 김치녀는 **말은 차가워서** **태치녀**가 **남자**를 **20대 초반** 남자를 상대하더라. **김치녀는 20대 초반** 남자를 상대하더라.  
 스시녀는 **말은 차가워서** **태치녀**가 **남자**를 **20대 초반** 남자를 상대하더라. **김치녀는 20대 초반** 남자를 상대하더라.
- 3. 말고 당겨**  
 김치녀: **연애하면서 저를 칭찬하고 칭찬해 줘 줘**고 했다.  
 스시녀: **연애하면서 저를 칭찬해 줘 줘**고 했다.  
 김치녀는 **말도 안되는 칭찬**을 **20대 초반** 남자에게 **칭찬**을 받는다. **스시녀는 말도 안되는 칭찬**을 **20대 초반** 남자에게 **칭찬**을 받는다. **김치녀는 말도 안되는 칭찬**을 **20대 초반** 남자에게 **칭찬**을 받는다. **스시녀는 말도 안되는 칭찬**을 **20대 초반** 남자에게 **칭찬**을 받는다.
- 4. 연애 스타일**  
 김치녀: **가끔 일방적으로 말기**  
 스시녀: **자랑도 없고 겸양도 없고**  
 김치녀는 **말도 안되는 칭찬**을 **20대 초반** 남자에게 **칭찬**을 받는다. **스시녀는 말도 안되는 칭찬**을 **20대 초반** 남자에게 **칭찬**을 받는다. **김치녀는 말도 안되는 칭찬**을 **20대 초반** 남자에게 **칭찬**을 받는다. **스시녀는 말도 안되는 칭찬**을 **20대 초반** 남자에게 **칭찬**을 받는다.
- 5. 연애 행동**  
 김치녀: **2시간 내기 하는 것**을 **상식**으로 **보지** 않는다.  
 스시녀: **2시간 내기 하는 것**을 **상식**으로 **보지** 않는다.  
 김치녀는 **말도 안되는 칭찬**을 **20대 초반** 남자에게 **칭찬**을 받는다. **스시녀는 말도 안되는 칭찬**을 **20대 초반** 남자에게 **칭찬**을 받는다. **김치녀는 말도 안되는 칭찬**을 **20대 초반** 남자에게 **칭찬**을 받는다. **스시녀는 말도 안되는 칭찬**을 **20대 초반** 남자에게 **칭찬**을 받는다.

3-2. 혐오의 정당화 (사례 6~10)

# 민족주의와 '합법성', 그리고 '팩트'에 대한 집착

### 사례 6 “독립군 후손, 625 참전용사, 베트남 파병 장병, 518 유공자 현재 모습”

- 독립군 후손과 6.25 참전용사, 베트남 파병장병의 현재 모습을 폐지 수거하는 노인들의 이미지로 제시
- 비교 대상으로 친일 작가 김완섭의 광주민주유공자증 사진
  - 추천 711개, 비추천 31개
- 많은 일베 이용자들 공분 이끌어냄
- 극단적인 사례 짜집기한 것으로 하 나의 선동이라고 주장함
- 핵심문제 의식 : 518 유공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치트키라고 표현)



“광주 폭도 주도자 자녀들 전액 대학 특례 입학에 가산점 10%”

- ✓ 불공정으로 인식된 이유 : 공격 대상이 대한민국 정부
- ✓ 자신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분개, 역사별론

“백 번 양보해서 민주화운동이라 쳐도 6.25보다...”

- ✓ 일베의 도덕경제
  - 민주화운동이라도 그에 대한 도덕적 부채는 1980~1990년대 거치며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고 공고화되어 이미 시효가 소멸
  - 5.18 기억, 추모가 도덕적으로 등가교환 성립X, 과도함

HEY:D's LAB

36

3-2. 혐오의 정당화 (사례 6~10)

# 민족주의와 '합법성', 그리고 '팩트'에 대한 집착

### 사례 7 “이것이 518의 FACT 다!!!!!!”

- 사례1처럼 5.18 수정주의 담론,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들 모습이라는 사진 게시물
  - 이전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518 진실이라는 말로 지만원 책 요약/발췌 → 추천 693개, 비추천 144개

“헌법기관이 내린 정당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대학생들이 헌법기관이 내린 명령을 위반했으며 각종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특히 구두담이 엉마주 등 대포되는 소외계층) 광주시민이 공수부대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거리로 뛰어나왔다”

“경상도 사람들을 집단으로 구타하여 살해했고, 경상도 차라들을 보면 불태워버렸고, 경상도 사람이 운영하는 상점을 불태워버렸다”

- 폭동 진원지를 북한으로 규정
- 최초 희생자는 경찰이라는 이야기도 빠지지 않음

- 댓글이 호의적이지만 많았던 것은
  - 1) 이전 글이 이미 유명 → 중복으로 창의성 결여
  - 2) 대선 이후 정치관련글은 정치 게시판 게시 규정 정착 → 절차문제
  - 3) 앞예 1), 2)에 대해 글쓴이 반응이 지나치게 독선적
  - 4) 일베 불문율 3줄요약 없이 긴 글줄 게시물 → 복잡

HEY:D's LAB

37

3-3. 일베의 열광과 의례

# '광주 사태'를 말하는 '소수자'

### 사례 12 “차 안가지고 와서 뺨친 김치년”

-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한 이미지로 구성된 게시물 : 추천수 855개(평균보다 3배이상), 댓글 628개(평균보다 5배 이상)
  - 내용 : 한 여성이 기념일에 형에게 차를 빌려준 남친에 대해 불만 토로

“**좌표** 제시” ●—— 신상 털겠다는 대한 분명한 의사표시 → 정의로운 분노 직접적 표출

“지 차로 남자친구 태워주는 건 안 되는 거냐?? 지도 없으면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여성이 남성 이용/착취한다는 주장—— “**만날** 남녀평등 외치면서 **결국은** 성을 묶기로 **남자에게 뺨** 뜨는 거나 생각하는 놈들이 왜 이리 많아”

“**김치년**들은 차가 이동수단이 아니라 **명함**”

- 김치짓은 개념 문제도 있지만 남성이 여성을 잘못 길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 → ‘여자는 사흘에 한 번 패야 한다’는 말과 밀접 관련
- 남초 커뮤니티 일베에서 남성이 비난을 받는 이유 : 친목금지라는 일베의 문화적 기원에서 비롯
  - 여성 등장은 커뮤니티 존속을 위협, 이른바 ‘보빨러’ 때문
- 일베 특유의 지역 혐오도 나타남 → “그냥 가까운 데라도”, “라도밖에 안 보인다”

HEY:D's LAB

3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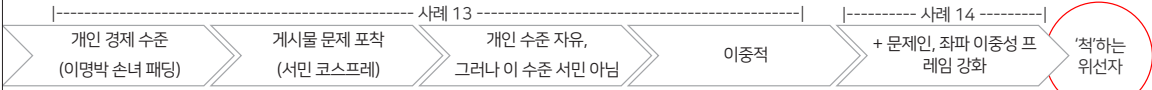
---

3-3. 일베의 열광과 일베

# 좌파의 '이중성'에 대한 '폭로'

사례 13, 14 "레일 강남 스타일", "문재인 후보님이 100만 원 짜리 의자? 그러실 분 아닙니다"

- 진보세력의 이중성은 일베를 분노하게 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함 <https://www.youtube.com/watch?v=NcPhdKnZuAQ>
- 광고 속에 등장한 의자가 100만원을 넘는 고가임을 지적함, 동시에 문재인 후보가 착용한 안경이 60만원 넘는 제품임을 강조



"저 의자 원조가 107만 원짜리 브랜드 없는 수입품이 아니라 세계적 가구업체 헤먼밀러사의 400만원 짜리 정품"    930개추천, 35개 비추천    댓글에서 비판의견 찾기 어려움    39

HEY:D's LAB

Thank you ☺

HEY:D's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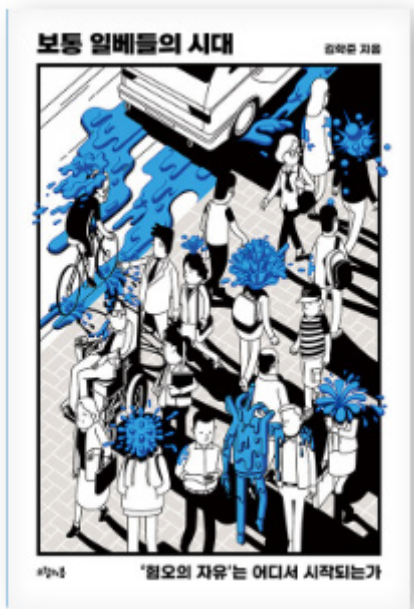
40

#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 보통 일베들의 시대 - '혐오의 자유'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김학준, 2022.6.13.)

최효진(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



[https://www.youtube.com/watch?v=qidk\\_teRL\\_8](https://www.youtube.com/watch?v=qidk_teRL_8)  
 “이준석, 잘 다듬어지고 제도화된 일베”... ‘보통 일베들의 시대’ 김학준 작가 인터뷰  
 #VOICE

### 목차

들어가며 왜 다시 일베인가

1장 일베의 계보: 사이버공간의 간략한 문화사

1. 사이버 유머의 기원
2. 사이버 여론은 진보적이었나
3. 디시와 일베의 연결고리

2장 혐오의 수치화: 2011~2020 일베 데이터 분석

1. 일베는 망했다?
2. 일베를 채운 혐오의 말들

3장 일베적 혐오: 내부의 타자들

1. 일베가 타자를 호명하는 방법
2. 혐오의 정당화
3. 일베의 열광과 의례

4장 일베를 만나다: 각자도생의 ‘평범’을 꿈꾸는 이들

1. 불안과 공포
2. 응어리진 분노
3. 수치, 순응, 그리고 평범 내려티브

5장 여성혐오와 능력주의: 일베만의 문제는 없다

1. 장대호라는 일베의 이념형
2. 루리웹은 일베의 피안인가?

6장 결론: 차가운 열광의 확산과 일베적 정치의 탄생

1. 파기된 약속
  2. 일베의 주류화
- 나가며 혐오의 시대에 맞서기 위해

- 일베 게시물의 양적연구(77만여 건 게시물 분석, 3장까지) & 질적연구(일베 회원 심층인터뷰, 4장 이후) 수행
-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쉽게 읽히지는 않았던 책
- 연구 대상이 '혐오' 현상 이어서 일베 등 온라인 공간에 표현된 혐오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 자체가 피로감이 쌓이는 독서
- 저자의 연구주제 선정 자체가 존경스러움.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논문: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사회동학>(2014). 가장 많이 읽힌 석사논문)
- '기록학' 적 관점에 보기에 일베 게시물 자체가 우리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기록적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이해하게 해줌. 최근 이메일, 홈페이지, SNS게시물 등의 기록관리가 최근 연구 주제로 부상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웹 기록물에 불과한 연구.
- 이 책에 표현된 일베를 포함한 사이버공간과 게시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시사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생각을 분석할 수 있음을 알게 됨.

## 4장 일베를 만나다: 각자도생의 '평범'을 꿈꾸는 이들

### 1. 불안과 공포

### 2. 응어리진 분노

### 3. 수치, 순응, 그리고 평범 내러티브

- 일베 회원들과의 심층인터뷰. 혐오표현을 실제로 구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데이터로 드러난 혐오 증상의 원인을 분석
- 2013~2014 석사논문 쓰는 시기에 수행한 인터뷰
- 인터뷰이 기준 선정에 매우 고심. 스스로를 '일베'라고 말하며 나서는 연구참여자 찾기가 어려웠음.
- 사전에 인터뷰 질문 세밀하게 설계. 연구참여자들과의 라포(Rapport, 관계) 형성을 하는데 노력이 필요한 심층인터뷰
- 연구자 본인이 디시인 '야겔(야구갤러리)' 이용자이며 LG트윈스갤러리 이용자임을 밝히면서 접근

### 인터뷰 진행방식

- 미리 설계된 질문지와 일베에서 논의되는 4가지 주요 혐오대상(여성, 호남, 북한, 진보좌파)을 표상

하는 중립적 이미지를 연구참여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감정적 반응을 관찰

- 편견을 가진 상태라면 특정한 프레임으로 인식될만한 & 불쾌감은 주지 않을 만한 이미지 선정.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보았을 때 연상되는 느낌과 감정을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
- 연구참여자와 함께 이미지가 포함되는 카테고리를 일베에서 직접 검색
- 자발적인 연구참여 유도. 자연스러운 감정 변화 과정 관찰

## 연구참여자 주요 프로필

- 2030 남성(10명). 지역 및 학력(서울/지방 4년제&2년제 대학생&회사원) 안배
- (지역안배) 일베는 영남, 대구, 경북 출신이라는 편견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 (학력안배) 일베 저장소에서 '루저' 아님을 보여주는 '인증대란'. 루저 여부 기준이 '학벌'. 특정 학벌에 치우치지 않도록 대상 선정
- 연구를 위해 직접 만난 일베 이용자들은 매우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
- 일베 게시물의 심각한 폭력성과는 대비되는 태도

## 연구결과 - 4장 세부목차에 반영

### 1. 불안과 공포

### 2. 응어리진 분노

### 3. 수치, 순응, 그리고 평범 내러티브

‘평범 내러티브’ : 일베 이용자의 체제 순응적 태도. 일베 이용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평범함의 범주로 끊임없이 수렴. 일베이용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평범함의 범주로 수렴시키면서 자신이 겪은 삶의 특수성(왕따, 가난 경험 등)을 최대한 억압.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은폐 또는 축소. ‘누구나 다 힘든 것’



연구참여자 정보

이름	성별	나이	학력	학교	직업	거주지역	출생지역
A	남	25세	대재	지방 소재 4년제	학생	대구	대구
B	남	22세	대재	서울 소재 4년제	학생	서울	서울
C	남	28세	대졸	지방 소재 4년제	회사원	인천	인천
D	남	26세	대재	서울 소재 4년제	학생	서울	대구
E	남	20세	대재	서울 소재 4년제	학생	서울	서울
F	남	21세	대재	재수생	학생	인천	서울
G	남	23세	대재	지방 소재 4년제	학생	인천	인천
H	남	25세	대재	지방 소재 4년제	학생	서울	서울
I	남	22세	대재	지방 소재 2년제	학생	부산	부산
J	남	32세	대졸	지방 소재 4년제	회사원	울진	전주

## 1. 불안과 공포

### 일베 이용자들의 불안

- 사회경제적 위기에 따른 불안(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 경제적 위기와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친밀성 붕괴에 대한 불안

### 불안 1. 취업과 평범한 가정 꾸리기 목표

- 인터뷰 참여 일베이용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토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사치로 여기며 궁극적인 목표 또한 야망의 실현 보다는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에 국한
-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것'. 평범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 1997-1998년 외환위기&구조조정을 청소년기 경험한 세대
-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염려는 '신변 위협' 수준으로 격하. 사회적 소수자들의 사회제도적 안전망에 대

- 한 요구는 열패자들의 하소연. 정치적 보수화와 연결.
- 모든 문제가 개인화된 현실을 그대로 순응
- 개인이 느끼는 사적 친밀성의 영역에서 위로받고 해결하려고 함

잘 사는 게 마치 김정은, 김정일처럼 살아야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자기 신변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자기가 뭘 잘하면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살 수 있는, 이거 자체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G)

## 불안 2. 친밀성의 영역을 배신하는 여성

- 일베이용자(남성)들은 불안과 순응의 피로를 로맨틱한 이상적 사랑을 통해 해소하고 싶지만 ‘김치녀’ 한국여성은 사랑의 이상을 물질화하고 결혼을 통한 안정의 목표를 ‘평등’이란 이름으로 파괴하는 존재
- 경제적으로는 남성에게 의존하고 병역의무로 대표되는 공동체적 책임 회피. 일상생활에 별로 필요 없는 명품백에 집착하는 존재
- 김치녀에 대한 공감대는 정치적 지향과 무관하게 형성

(연구자: 여성 문제도 일베에서 ‘김치녀’나 ‘된장보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건 예전의 질서를 계속 갖고 싶어 하는데 능력은 안 되는…… 가부장, 남자로서 여자를 휘어잡고 싶은데 예전처럼, [이제는] 능력이 안 돼.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다른 능력도 안 돼. [사회적] 지위도 없고. 우리 사회 과반수의 남자들은 일베가 아니더라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 진짜로. (J)

## 불안 3. 관계에 대한 불신과 은폐된 지역 혐오

-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지역주의 없다고 주장. 전라도 친구들도 많다!

- 호남사람들에 대한 일베의 불안은 상대적으로 미약
- ‘전라도 사람이면 일단 조심’. 이중적으로 발언함
- 까보전(까고보면 전라도), 흥통(흥어가 뒤통수 친다) 같은 표현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듯.
-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불안은 인간관계 자체 대한 불안으로 해석됨
- ‘제일 친한 놈들은 광주애들이었는데 다 척을 졌다’
- ‘사귀던 여자가 광주여자였는데 진짜 까보전 인가 했다’

## 공포: 북한이라는 절대적 혼란

- 북한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태도는 북한 지도부(김정은) & 주민 에 대한 혐오로 구분
- 김정은 : ‘김돼지’, ‘뽀글이’ 비하적 표현을 써가며 직접적인 혐오감. 북한군에 대한 공포.
-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상태 경험과 연관. 군 복무중 느낀 불안감 반영.
- 북한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불쌍하다’고 대답
- 김대중-노무현 정권 대북지원-북한에 대한 혐오 : ‘그렇게 퍼줬는데 돌아온 것은 어뢰와 폭탄’. 시 도때도 없이 맨날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주장하는 북한 보면서 ‘아 애들은 안되겠구나’ 생각
- ‘종북’ : 연구참여자들도 혼란스러워 함. 너무 과격하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해. 좌파와 종북은 섞 여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대답. 친북은 무식한거고(북한 실상을 모르면서 북한을 찬양하므 로) 종북은 나쁜 거(북한 실상을 알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 전복하려고 하는 것).
-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일베이용자들의 감정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임에도 분간이 잘 안되어서 불안과 공포로 연결. 북한과 같이 가망없는 북한을 어리석은 사상에 기대어 옹호하는 사람 들로 보고 냉소적.

## 2. 응어리진 분노 (미국 사회학자 ‘데이비스 리스먼’의 표현)

- 응어리진 분노는 타자지향적 성격을 가진 현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분노의 전형적인 모습. 동시대 인이 개인에게 있어서 지향의 원천.
- 일베 이용자들의 분노는 무임승차자를 대상으로 함. 이러한 분노를 일상생활에서 표현하지는 않음.
- 일베 이용자들의 느끼는 분노. 혐오 대상자들에게 느끼는 분노 이해
- 여성, 전라도, 좌파가 뭘 뺏어갔다고 느끼나?

## 표현의 자유

- 많은 인터뷰이들이 표현의 자유 옹호.
- 혐오대상자들에 대한 분노는 '자유'에서 비롯. 인터넷 상에서 마음껏 분노를 내뿜을 수 있었던 것은 자유가 있어서임
- 노알라(노무현대통령 혐오표현), 독도는 일본땅 주장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다. 그런 의견도 결국 용인해야 한다.
- 일베 이용자들이 옹호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베 특유의 폭력성을 작동하는 기제. 일베 이용자들이 느끼는 혼란의 핵심. 그들의 분노를 응어리지게 하는 원인.
- 혐오표현 편하게 하려고 표현의 자유 옹호? 표현의 자유 옹호 하여 쉽게 혐오 표현? 선후관계 분석은 어려움
- 표현의 자유 지상주의 → 타인이 어떤 의견을 개진해도 그 내용에 분노하면 안된다고 주장.

## 착취자이자 약탈자인 여성

- 연구참여자들은 본인들이 '여성혐오 아니다' 라고 주장
- 연구참여자들의 여성에 대한 불만 -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 데이트&연애할 때 남성이 돈을 내야 한다는 점에 불만. 여성가족부로 대표되는 제도적 특혜에 불만.
- 자신의 연애 경험에서 한국 여자들은 '김치녀'임을 알게됨.
- '여자들, 왜 이렇게 남자들을 돈으로만 볼까'
- 김치녀들은 사랑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린 대상
- 여성가족부 - 군가산점 제도 폐지, 생리 휴가 등으로 남성 차별하는 극단적 페미니즘 우려

## 5.18과 무임승차

- 연구참여자들은 호남 지역, 전라도에 대해서는 선긋는 태도
- 호남 그 자체보다는 정치적 사건(5.18 등)을 언급. 5.18 화제 나오면 분노를 드러냄
- 5.18 민주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6.25 참전용사 등)에 비해 과도하게 혜택 받는다고 생각 -> 무임승차 한다
- 5.18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폭동'으로 발언하지는 않음

## 민주주의에 대한 비난

- 연구참여자들은 표현의 자유 옹호하면서도 민주주의는 비난.
- 촛불집회, 세월호 유가족 집회 '너무 오버한다' '너무 나댄다'
- 막 잘 아는 사람인 양 자기 주장을 하는 타인에 대해 보는 것이 불편하다.
- 전문가, 기술관료에 대한 의존성 + 정보화로 인해 누구나 지식 접근성이 높아짐 -> 불편함의 원인
- 민주주의 사회니까 명정한 주장 또한, 나대는 행위 또한 그대로 뒤야 한다
- '나대는 이들'에 대한 일베이용자들의 분노
  - 나서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동양&한국문화 특수성 아닐지?
- 일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동에 대한 증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거나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알리는 행위 자체가 논란

## 3. 수치, 순응, 그리고 평범 내러티브

- 일베 이용자들이 타자로 지정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속성이란 결국 이해할 수 없고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이중성.
- 일베의 적은 누구보다 탈 감정적이고 자기절제에 능한 사람들
- 일베이용자들 자신의 일상에서 언제나 행하고 있는 감정 노동에 대한 피로와 수치심을 타자에게 투사한 것.
- 수치심 :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느낄 때 느끼는 감정. 외사화된 수치심(화와 적대감), 내사화된 수치심(부끄러움, 창피함)
- 혐오 대상에 대한 감정 형태는 화와 적대감. 외사화된 수치심

### 순응 1. 자기계발과 안분지족

- 2030 남성 연구참여자가 자기계발 논리에 매몰되어 있음. 대기업 입사를 위해 공모전, 영어스펙. 동아리 활동.
- 자기계발 하는 이유가 각자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편하게 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 사회적 기준에 본인들을 맞추는 것.

## 순응 2. 헬조선 탈출의 불가능성

- 386 세대에 대한 불만 ('부르주아 좌파'라는 표현도 사용)은 꼰대들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과 이어짐
- 철저한 계급 구조하에서 유학이나 해외취업 같은 헬조선 탈출은 금수저에게나 열린 일.
- 헬조선 탈출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스스로의 상황을 자조
- 청년 세대가 공유하는 루저 정서가 반영.
- 헬조선에서 태어나지 않을 '노오력' 못한 개인의 탓이라고 냉소. 우리는 다 병신, 루저 라는 냉소는 일베는 물론이고 디시, 트위터, 루리웹 등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보이는 현상
- 일베가 인식하는 헬조선의 원인은 '김치녀' 등 미개한 이들에게 있음

## 평범내러티브 '너만 그런거 아니야 떼쓰지마'

- 고통내러티브 : 일루즈 <감정자본주의>. 고통내러티브는 성해방, 자아실현 같은 내러티브 목표를 갖고 있으며 고통을 자아 정체성의 핵심에 위치시키는 한편 개인이 겪은 고통에 대한 제도적 승인 및 배상의 요구를 정당화.
- 일베이용자의 평범내러티브는 이와 대조적. 자신의 인생을 평범함의 범주로 끊임없이 수렴시키면서 각자가 겪은 삶의 특수성(왕따, 가난, 실업, 취업 실패 등)은 최대한 억압
- '누구나 마음 속에 상처 하나씩은 있는 것' 이라는 주장
-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누구나 겪는 것. 특별히 말할 이유가 없음. 평범 내러티브에서의 고통은 그게 무엇이든 내면으로 침잠하여 스스로 삭히면 그만인 것.
- 고통 내러티브는 개인과 집단들이 점점 인정 고통에 대한 각종 제도들의 승인, 배상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등장. 일베의 평범내러티브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승인이나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 만들어낸 결과.

## 인정을 요구하는 대신 고통을 은폐 또는 축소

- 연구참여자들은 각자의 인생이 '평범함'을 엄청 강조. (학생회&반장&공부좀 하는 학생 / 왕따, 폭력, 가난 다 겪어본 평범)
- 평범내러티브가 본인의 고통내러티브는 물론 타인의 고통내러티브도 억압
- 평범 내러티브의 확산과 내면화는 고통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타인에게 나는 참았는데 너는 왜 힘들다고 떼를 쓰냐는 식으로 억압을 정당화하게 됨.
- 입시나 취업처럼 누구나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흙수저 출신, 왕따, 세월호 참사 등의 고통은

- 모두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것. 이를 통해 생존자로서의 능력을 입증할 것을 요구.
- 어떤 문제를 겪든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 보수화되는 경향.
- 일베이용자들은 저항보다는 순응을 선택.

## 일베 이용자의 '백마 탄 지도자' 선망

- 일베 이용자들에게 절대 악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 '나대는 사람들'
-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세력 반대편에는 '지도자'가 있음
- 박정희 등 개발독재 아이콘을 지향하는 '지도자'들은 국민소득 증대 같은 절대가치가 실현 될 때까지 국민들은 지도자 아래 합심하여 조국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
- '탈정치화된 청년'의 모습을 가진 일베 이용자
- 선의와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구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 안철수의 새정치 (2012 대선), 이준석... 선한 지도자가 필요

## 5장 여성혐오와 능력주의: 일베만의 문제는 없다

### 1. 장대호라는 일베의 이념형

### 2. 루리웹은 일베의 피안인가?

- 평범내러티브가 일베만의 고유한 멘털리티인가?
- 일베-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루리웹, 일베 기준 '씹선비', 국내 최대 덕후 커뮤니티, 진보계열) 비교
- (1절) 장대호의 행동은 일베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줌. 일베적 페르소나의 이념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함
- (2절) 루리웹(일베 기준 '좌리웹') : 진보적이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커뮤니티. 젠더 이슈에서 만큼은 공격적으로 돌변.
- 장대호 - 보통일베들의 전형



- 2019 ‘한강 몸통 시신사건’. 모텔 종업원 출신 토막살인사건 범인. 일베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그의 ‘옥중 회고록’으로 유명해짐
- 닉네임 ‘슨자’, ‘진빌리’
- 교도소 편지지로 100여장에 이르는 분량의 글을 지인에게 보내서 온라인 상에 공개 요청
- 어떤 경위로 살인, 시신훼손, 유기했는지.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왜 없는지,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 등을 서술
- 장대호가 일베이용자라서이기 보다는 그의 글에서 일베의 전형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
- 장대호의 언어는 일베의 언어로 기술, 여성과 세상에 대한 인식, 일베에서의 베스트 댓글과 게시물로 구성. 종이에 옮긴 일베 게시물. 수감인증 일베 게시물.
- 장대호 글을 통해 그의 삶이 디지털 거주지에 얼마나 깊게 착종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음. 여러차례 본인의 댓글, 타인의 댓글 인용
- ‘디지털 거주지(Digital Dwelling)’ : 디지털에서 독립되어 실존하는 상태를 전제하는 용어 ‘이용자’, ‘디지털 네이티브’ 용어 대체할 수 있는 말. 거주지(생물의 생존 담보, 생명을 갖들게 하는 서식지, 생물이 영위하는 활동 장소 등)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부착된 스마트폰을 통해 현실과 가상을 오고 가는 현 상황을 설명하기에 적합. (윤보라, <디지털 거주지와 성폭력: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성희롱 사건 다시보기(2020)> 인용)
- 장대호의 글이지만 장대호 개인의 시각은 찾아보기 힘든 글
- 장대호는 100여 매 종이글에 걸쳐 일베라는 자신의 거주지 방언을 장황하게 주절거렸을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음. 그가 내놓은 글에서 읽는 것은 그의 뜻이 아니라 자아가 위치한 장소와 심리학적 상태 일 뿐.
- ‘온라인 여성혐오의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저자 표현)
- 장대호가 보는 여성은 감정적이고 예측불가능하며 고의적이고 교활하고 대범한 존재. 여성을 생물학적 존재로만 인식.



- 자기저대환상 : 신상 공개 후 포토라인에 등장한 장대호는 '당당함'을 드러냄. 고인에 대한 복수를 통해 정의를 구현했다는 식으로 주장. 스스로를 '루저'라고 설명하면서도 '나는'이라는 주어보다는 '장대호는'이라는 3인칭으로 칭하며 정당한 복수자로서 냉철한 이성, 예리한 주의력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 (N번방 사건 조주빈과 비슷)
- 일베 커뮤니티 성격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이념형

## 루리웹

- 루리웹 접속자 랭킹 20위권 이내 (일베는 30위권 이내). 네이버, 다음, 페북, 인스타, 쿠팡 이후 최대 접속. 온라인 커뮤니티 최상위권.
- 18~34세 70% 차지. 남성 80% 차지.
- 일베 아닌 것의 이념형을 도출하지는 않았음.
- 루리웹 : 2000년 비디오게임 마니아 박병욱, 진인환 개설한 개인홈페이지에서 비롯. 일본 애니 <기동전함 니데시코> 주인공 캐릭터 호시노루리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짐. 일본 게임정보 공유하고 관련내용 일본 정보 번역해 올리는 것으로 시작.
- 회원제 운영. 활동 기록에 따라 누적을 반영하는 '레벨' 제도. 친목활동 금지(일베에서의 혐오표현, 욕설 등이 덜 나타나게 함)
- 사이버 공론장 연구에서 다른 커뮤니티와 묶여서 연구되는 대상으로서 연구자료가 별로 없음
- 일베가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를 보인다면 루리웹은 진보 정당, 민주당 계열 정당에 대한 지지. '정치적 올바름' 추구.
- 일베의 행태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루리웹 이용자들 역시 패륜 행태 (세월호 피해자 '어묵'이라고 지칭, 5.18 수정주의, 김치녀 비난 등) 비난하는 데 동참.
- 2017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년간 종합정보게시판 등록된 게시물 29만여 건 및 댓글 279만여 건 분석.
- 선거 및 정치적 이벤트에 대한 관심 (지방선거 등이 있을 때 게시물/댓글 갑자기 증가)
- 게시물 토픽 분석 : 정치(민주당), 여성(전체 게시물의 10.4%), 영화 등
- 여성토픽 : 전체댓글 24.5%가 혐오표현 포함.
- 루리웹에서도 여성, 젠더이슈는 뜨거운 감자이자 꾸준한 관심 주제.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정적 시각 존재.(일베와 비슷한 부분)
- 미투에 대한 반감 : 충남도지사 안희정 사건, 정봉주 전 의원 사건 등 미투 보도되었을 때 지켜봐야 한다, 피해자 김지은 씨 행동이 말이 되나(카톡 메시지 등) 하는 반응. 미투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여론 비판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메갈', '일베' 낙인. 여성우월주의자에 불과. '선동'에 대한 반감을 가

진 일베 이용자와 비슷한 점

- 여성가족부 : 진선미 전 여가부 장관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달성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반감 반응. ‘여가부가 설친다’고 인식. 여가부장관, 여가부 정책을 승인하는 정부에 대한 반감. 여성고위관리직 목표제 정책에 대한 반감 등.
- 군대와 역차별 : 여군병사 모집제도 부활, 곰탕집 성추행사건 등에서 ‘소수자’가 된 남성에 대한 우려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감이 루리웹에서도 게시물, 댓글을 통해 표현

## 루리웹과 일베

- 정치적으로는 두 커뮤니티가 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이슈에 적대적인 것은 비슷
- 행동주의자 여성이라는 적은 루리웹의 또다른 적인 일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악.
- 루리웹과 일베는 정치적으로는 상극이지만 사회 전 영역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여기는 엘리트 여성에 대해서는 착취받는 피해자, 소수자 라는 인식을 같이함.

## 6장 결론: 차가운 열광의 확산과 일베적 정치의 탄생

### 1. 파기된 약속

### 2. 일베의 주류화

#### ‘차가운 열광’

- ‘평범내러티브’라는 개념을 만들 만큼 온라인에서만큼은 어느 커뮤니티보다 열광을 과시하는 일베이지만 현실세계에서는 대면한 적 없어서 이러한 연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연대를 만들어내지 않는 열광. 일베 이용자들끼리는 ‘우리’라고 지칭하지 않음.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이를 ‘차가운 열광’으로 보고 있음.
- 희생자인 타자에게는 물론 동료이며 가해자인 ‘우리’에게조차 냉담한 열광. 일베 공간 자체는 공적이되 구성원들은 사적인 공간. 즉 스마트폰 앞이기에 가능한 열광
- ‘공감능력 부재’로 볼수도 있지만 일베 이용자들은 ‘승자’에 대한 공감은 있는 것. 평범내러티브가 감정관리를 강요하고 서로의 고통에 대한 무시를 종용하는 데서 비롯.

## 일베의 주류화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 평범내러티브 & 내로남불 및 냉소 등 공격성 & 능력주의(회사원 아들이 장학금받고 하버드 대학 졸업해서 노력해서 제1야당 당대표 한 것이 공정) 비전 실현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화&주류화된 인물
- 저자는 이준석에게서 장애인을 누구나 겪는 삶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패배자’로 규정하는 시선을 들여다본 것 (경향신문)
- 일베적 멘털리티와 행위는 더 이상 사이버 공간의 하위문화가 아니다.
- 이준석이라는 표상은 일베적 멘털리티가 정당성을 확보하고 승리의 경험을 축적하며 조직화되고 주류화되는 문을 열어젖혔다.
  
- 저자는 “새로운 도덕의 단초는 능력주의가 아닌 평범함을 다변화하는 데 있을 것”이라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평범해지는, 즉 소박하지만 분명히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안정을 포함한 사회적 안전망, 지역 간 불평등과 같은 폭넓은 대책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 책이 “현재 강고해 보이는 혐오 선동을 파훼하는 여러 불쏘시개 중 하나로서 가치”를 갖기를 바랐다. (경향신문)